

## 교열을 하면서

신 승 용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찬실 편수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입사라고 하니까 연구원에 들어온 것은 입원이라고 해야 하나? 입원을 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엉뚱하게도 연구원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오히려 나를 치료하는 일이었다. 즉 교열이라는 직무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교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교열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글을 교정하면서 검열함(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원고나 문서의 내용을 검열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금성판, 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교열이라는 것 역시 교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검열하는 것이겠지만, 교열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칼질(?)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칼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열에 대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교열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의 글을 또는 실력이나 지위가 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보다 낮은 사람의 글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내가 교열을 보는 대상은 모두 나보다는 까마득한 선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배움을 얻는 교수님이 아닌가? 이것은 교열이라는 것에 대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이다. 학교에 가서는 선배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배움을 받는 입장에 있다가 연구원에 와서는 거꾸로 선배가 나에게서 집필 원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고 배움을 받아 가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내게 학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원고에 칼질을 한다는 것은 도

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처음 얼마 동안은 집필 원고를 수정할 때마다 집필자 선생님께 괜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교열 원고를 가지고 집필자 선생님들과 얘기할 때도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 있게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하는 식으로 항상 자신 없는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한 탓이지만, 처음 얼마 동안은 상황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완전히 헤맨 것이다. 그래서 올바르게 교열을 해 놓고서도 막상 집필자 선생님께 교열 내용을 전달할 때면 '내가 뭘 잘못 교열하지는 않았나?'하는 불안 속에 떨어야만 했다.

이렇듯 아직까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열을 본 원고를 놓고 처음으로 집필자 선생님과 얘기했을 때의 일이다. 집필자 선생님께서 교열한 원고 중에서 몇 장을 들고서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교열을 본 것이 오히려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것이었다. 처음 교열에다 처음 집필자 선생님과 대면하는 상황이고, 또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한 일이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던 적이 있다. 심지어는 교열한 내용 자체가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가 교열을 해 놓고서 그 교열한 원고에 대해서 집필자 선생님께 재교열을 받은 셈이다. 한편으로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날 이후로 교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 누구의 원고를 교열하고 있는데……'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누구의 원고냐가 아니라 단순히 집필 원고를 교열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사전 편찬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직무라는 쪽으로 사고를 고치기 시작했다. 교열자인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집필 원고 자체이지 그것이 누구의 원고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교열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교열을 보게 되었고, 또한 스스로 일관성을 결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처음 얼마 동안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점차 사전 작업의 큰 흐름 속에 동화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전체 사전 작업 중에서 교열이 갖는 의미와 위치 따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교열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모른 채 교열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막연하기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씩 이해하고 전체 사전 작업 중에서 교열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를 알게 되면서부터 현재 하고 있는 교열이라는 작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만큼의 책임감도 생기게 되었다.

결국 이제서야 입원해서의 치료 기간이 끝나고 제대로 남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 기간이 끝나자 어렵게만 느껴지던 집필자 선생님을 대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또한 집필자 선생님들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직무인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이후부터는 집필자 선생님들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불만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집필자 선생님들에 한한 이야기이지만 너무도 성의 없이 집필을 해 오시는 분들의 원고를 교열하다 보면 괜히 짜증스럽기도 했고 무책임한 집필 태도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완전히 기존 사건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복사하듯이 베껴 온 집필자 선생님을 볼 때는 사건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압담하기도 했다.

교열은 집필자 선생님들을 훈련시켜서 보다 나은 집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보다 나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부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결국 그것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책임감만큼이나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집필자 선생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집필하신 원고에 감히(?) 칼질을 한다는 것에 죄송스러움을 느끼던 초기의 소심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을 당연히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걸 보면 그동안 키가 좀 자란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더이상은 사전 작업의 객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이라는 의식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걸 보면 확실히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철이 드나 보다. 행여 가끔은 또 지나친 주인 의식하에 집필자 선생님들께 보다 철저하고 강경한 어조로 수정을 요구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집필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썩 내키지 않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나은 사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하나의 사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교열이라는 작업은 그 중의 하나일진대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체 사전 작업 속에서 미

약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사전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나의 힘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자부심도 생기도 아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도 느낀다. 아직은 발간될 사전의 모습이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보다 나은 사전의 편찬을 위해 적어도 내게 주어진 일만큼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아울러 집필자 선생님들의 옥고를 기대해 본다.